

국제활동

영국 안전보건연구원(UK-HSL) 직업건강연구 활동 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3. 11. 24.(일)~11. 30.(토)까지 영국 벅스턴(Buxton) 소재 안전보건연구원(Health and Safety Laboratory, UK-HSL)을 방문(장재길 연구위원)하여 동 기관의 직업건강 연구 활동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실험실을 돌아보며 관계자들과 면담하였다.

직업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산하 조직인 영국 안전보건위원회(United Kingdom-Health and Safety Executive, UK-HSE)의 산하 기관인 UK-HSL은 영국 유일의 공립 안전보건연구기관으로 400여명의 인력을 보유(연구 전담인력은 300여명)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2013년을 기준으로 약 6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UK-HSE의 요구와 사업장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안전보건연구, 사고조사, 정부기관 및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이며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 사업장 협력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의 비중이 각각 85~90%, 5~7% 및 5~7% 정도를 점하고 있다. UK-HSL은 탄광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1911년에 설립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관으로 영국의 여러 곳에 산재하던 연구 시설을 모아 2004년도에 현 위치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식·동정

● 연구원 전입을 환영합니다.

소 속	성 명
연구기획팀	박정근 연구위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최병남 소장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지원팀	이상철 차장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지원팀	이영주 과장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지원팀	박은진 주임
안전연구실	박용규 연구위원
안전연구실	정성준 연구위원
직업건강연구실	최보화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성정민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구자훈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이혜지 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안병준 소장
화학물질센터 화학물질정보연구팀	최연순 연구위원
화학물질센터 화학물질정보연구팀	문정범 연구원
화학물질센터 위험성연구팀	이주엽 연구원
안전인증센터	황경용 소장
안전인증센터 제품심사	설문수 팀장
안전인증센터 제품시험팀	장래훈 차장
안전인증센터 제품심사팀	이민호 과장
안전인증센터 제품시험팀	강윤호 과장
안전인증센터 안전인증팀	이병준 차장
안전인증센터 안전인증팀	김성익 과장
안전인증센터 안전인증팀	김명관 과장
안전인증센터 안전인증팀	고윤현 과장



연구원장 메세지

‘조사(survey)’와 ‘연구(research)’

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도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초에는 제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Eurofound (The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글로벌 선진연구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새로운 해외선진연구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연구원의 울산 이전에 대비하여 폴란드의 국립중앙노동 보호 연구원 (CIOP)을 방문하여 실험중심의 연구실과 보호구 인증을 위한 시험설비의 우수성을 보고 왔고, 2013년에는 조사(survey)결과를 어떻게 정책자료화하는지 궁금하여 Eurofound를 방문한 것입니다.

Eurofound는 유럽 국가들이 더 좋은 삶터와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1975년에 유럽위원회에서 설립한 노사정



삼자기구로, EU-OSHA와 동격의 기구입니다. 이곳의 핵심적 활동은 ‘연구를 수행하는 일’과 ‘그 연구의 결과를 알리는 일’ 두 가지 다입니다.

Eurofound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해 세 가지 조사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유럽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21세기 들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EWCS를 벤치마킹하여 2006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은 통계조사로서 ‘취업자 근로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을

통해 부러웠던 점은 Eurofound는 5년마다 EWCS를 실시하면서 ‘조사’는 단지 ‘연구’를 위한 도구일 뿐으로 다음 조사까지의 3~4년이라는 기간을 조사 결과물을 심층분석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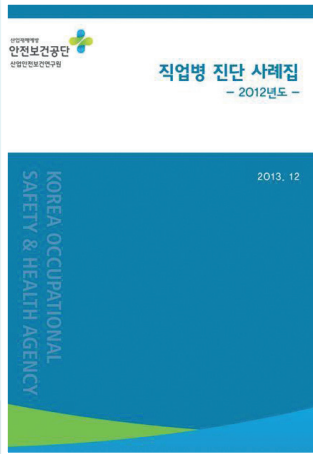
다행히 2014년부터 안전보건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정책 연구실’이 ‘안전보건정책연구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고 조사 기능과 그 후속 연구 기능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당장은 내부 연구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외부 위탁연구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책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부서’로의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 확립에 꼭 성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 정 선

안전보건 단신

2012년도 직업병 진단 사례집 발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1년 동안 심의했던 업무상질병 사례를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직업병 진단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2012년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 관련성조사를 의뢰받아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86사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근로자의 작업내용,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등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oshri.kosha.or.kr-역학조사/정도관리-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2014년도 제1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월 16일(목)에 서울역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원장(위원장), 화학물질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노사단체 관계자, 산업독성, 화학물질, 작업환경 및 경제학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여 2013년도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에 의한 특별관리물질 추가지정 및 2014년도 유해성·위험성 평가 연구과제(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회의는 평가 대상 화학물질을 검토하여 법적관리 필요성 및 관리수준을 제안하는 등 유해성·위험성평가 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하반기에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성 흡입독성 시험시설 설계 완료

산업현장에서 저 농도 장기간 흡입노출에 의해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신축 계획인 『만성 흡입독성 시험시설』의 설계가 작년 12월에 완료되었다. 건축 및 설비비를 포함 369억을 투입하여 6,300㎡, 3층 규모로 진행되며,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반’을 신설, 전담하도록 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본격적으로 건축 및 시험설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미지의 화학물질에 대한 발암성, 만성독성 등의 유해성 규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산 신사옥 폭발시험실 이전비용 4억 8천만원 절감 실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공단의 울산 신사옥 이전에 따른 폭발시험실 이전비용에 대하여 자체설계·이전추진 및 장비 고장요인 개선을 통하여 총 482,469천원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였다.

이번 폭발시험실 이전을 위하여 선진 방폭기기 안전인증기관인 독일 PTB를 방문하여 시험설비 구성 및 제어방식을 습득하여 설계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였으며, 시험실 전체 설비를 단위규모로 분리하여 개별발주 가능 항목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역량 노후설비를 개량하고 재사용 불가능 부품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또한 기존 사용중인 MFC(가스혼합설비)의 고장 원인을 파악하여 시험업무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시험횟수 및 시간단축을 통하여 업무 효율화를 이루었으며 신규장비 구매 소요비용도 절감하였다.

안전인증센터는 향후 울산 신사옥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초일류 인증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시험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단신

연구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홍천 소재 대명리조트에서 1. 22.(수)~ 1. 24.(금)까지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울산시대 개막에 앞서서 전 직원간 소통을 통해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다.



설 명절맞이 불우이웃 위문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위의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박정선)은 2014.1.28.(화) 오전에 인근 아동복지시설인 ‘파인트리홈’을 방문 하여 화장지, 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하였다. 인천시 부평구 일신로에 소재하는 ‘파인트리홈’은 15개월된 영아에서 18세까지의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91명의 원우들이 33명의 사회복지사에 의하여 가족처럼 보살피지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18세 이상의 구청장님의 허락하에 졸업을 하고 사회와 대학으로 진출한다고 ‘파인트리홈’의 원장님은 말씀하셨다. 특히 졸업한 원생이 완전 독립할 때까지 돌보아준다는 말씀에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연구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3. 1월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연구기획팀을 신설했다. 새로 신설된 연구기획팀은 안전보건 이슈를 선제적으로 탐색하여 중장기적인 연구방향 및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현장 지향적이고 적시성 있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연구의 종합조정을 수행할 것이다. 또 국내·외의 안전보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과성있는 안전보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안전보건 정책이나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행 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정책연구실은 정책제도팀과 연구지원팀으로 분리 운영하며, 직업병연구센터는 직업건강연구실과 직업환경연구실로 분리되어 건강영향 연구와 유해인자 노출 연구 등으로 기능을 전문화 시켰다. 한편 산재예방 사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재해통계분석팀은 공단본부로 이관되었다.

국제활동

연구원의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Eurofound 출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3. 12. 4.(수)~ 12. 8.(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European Foundation (Eurofound)을 방문(박정선 연구원장 등 3명)하였다.



이번 출장기간 동안 Eurofound의 부원장을 비롯한 연구팀과의 회의를 통해 Eurofound의 중장기연구계획 수립, 미래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내년도 실시예정인 유럽근로환경조사(EWCS)의 준비사항과 우리나라에서 올해 실시할 예정인 제4차 근로환경조사(KWCS)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박정선 연구원장은 Eurofound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이 정책입안자에게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translation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근로환경조사(KWCS) 등 범국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부각하는 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 정책수립 근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 연구원은 Eurofound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여 근로환경조사 결과물에 대한 자료공유, 공동 분석 및 연구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